

## 녹색기후기금 100 억불로 초기 재원조성액 낮춰

반기문 사무총장의 기후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에 대한 UN 녹색은행(녹색기후기금)지원 압력 증가  
**2014.9.10/ UN 의 기후금융 주요 기구 녹색기후기금, 2014 년 말까지 150 억 불 모금 계획을 100 억불 조성으로 대체**

선진국 고위정부관계자들이 독일 본에서 9 월 8 일~9 일 만나 GCF 발전에 대한 기술적 논의를 진행했다.

현재까지 독일은 GCF 에 대한 상당한 지원을 공약한 유일한 나라로, 독일이 2014 월드컵 최종승리 거머쥔 다음날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10 억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밝힌바 있다.

지난 6 월, 헬라 쉘로흐 GCF 사무총장은 150 억불 조성을 추구하고 있으며, 3 년에 걸쳐 개도국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.

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다른 선진국들이 GCF 에 대한 자금공여를 약속했지만, 구체적 액수를 밝히지는 않았다. GCF 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를 더 파악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.

UN 관계자들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주재하는 기후정상회의(9 월 23 일 뉴욕에서 개최 예정)에서 더 많은 잠재적 공여자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.

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GCF 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.

“각국 정부들이 말이 아닌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. 지금부터 차기 UN 기후변화협약 리마 당사국총회가 개최될 때까지 GCF 재원조성이 반드시 시작되어야 한다. 보편적으로 적용될 중요한 2015 신기후협약을 전 세계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100 억 불의 초기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자금조성 의도를 보여주는 좋은 신호이자,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.”

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기업들 역시 GCF 의 성공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희망했지만, 기대하는 지원의 수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.

“민간부문의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, 공공부문 자금지원을 매우 스마트하게 활용해야 할 필요성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”며 “실제 우리가 필요한 액수는 연간 1 조 달러다”고 덧붙이기도 했다.

GCF 는 화석연료에서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원하는 개발도상국에게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.

2010 년 국가 정상들은 개도국을 돕기 위해 2020 까지 1 천억 불을 조성하여 전달 한다는 데에 합의했지만, 영국의 싱크탱크 해외개발연구소(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)에 따르면 목표액 중 적은 액수만 현실화 된 상황이다.

국가들의 공여금 상세한 액수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11 월 ‘공약회의’ 이전, 10 월 바베이도스에서 GCF 이사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.

[번역\_0911\_GCF 재원조성액수 하향조정]

출처 = <http://www.rtcc.org/2014/09/10/green-climate-fund-lowers-cash-demands-to-10bn/>